

제 105 회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

(문제지)

※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

급수	사범급	유형	A형	수험번호		-		-		-		
문항수	200	객	50	성명								
		주	150									
시험시간	120분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에 문제유형(A, B)를 <예시>와 같이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 답안지의 주·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정방법:
 -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
 -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
- 주관식 I은 OCR답안지에, 주관식 II는 별도의 주관식 II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객관식과 주관식 구분)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
-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예시>

문제유형	
A형	●
B형	○

■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 운영기관


 社團 漢字教育振興會
 法人

韓國漢字實力評價院

제105회 한자실력급수 [사범급] 문제지

객관식 (1~50번)

※ []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1. [扞] ① 鑷 ② 甄 ③ 幡 ④ 籩
2. [余] ① 椳 ② 耜 ③ 娥 ④ 筍
3. [嘴] ① 輜 ② 贄 ③ 鷺 ④ 嘶
4. [埤] ① 郟 ② 暹 ③ 諳 ④ 陝
5. [綱] ① 頰 ② 城 ③ 滌 ④ 迥

※ []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

6. [澣] ① 縞 ② 葫 ③ 誥 ④ 瓠
7. [棟] ① 穡 ② 賽 ③ 噤 ④ 齋
8. [紺] ① 坎 ② 戡 ③ 龕 ④ 箝
9. [愾] ① 芥 ② 鎧 ③ 瞋 ④ 啖

※ []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

10. [婆] ① 媪 ② 嬖 ③ 媼 ④ 媯
11. [獮] ① 狎 ② 猝 ③ 狷 ④ 狺
12. [痊] ① 癩 ② 疹 ③ 瘳 ④ 痍
13. [籬] ① 篁 ② 笏 ③ 筒 ④ 藩

※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

14. ① 朞 ② 膊 ③ 脩 ④ 脅
15. ① 轡 ② 哥 ③ 嚮 ④ 叶

※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16. ① 痰喘 : 담천 ② 霑濕 : 침습
③ 籠絆 : 농반 ④ 稍勝 : 초승
17. ① 混淆 : 혼후 ② 蓮藕 : 연우
③ 廐肥 : 구비 ④ 歇后 : 혈후
18. ① 渥丹 : 악단 ② 姒婦 : 사부
③ 羹楛 : 갱엽 ④ 坼甲 : 탁갑
19. ① 馳詣 : 치예 ② 檉柳 : 정류
③ 石鏃 : 석촉 ④ 連翹 : 연요
20. ① 闡揚 : 천양 ② 別墅 : 별서
③ 螭魅 : 이매 ④ 闔眼 : 개안

※ []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21. 아버지는 제사상 위에 [삽시]하시고 일어나서 절을 하셨다.
① 澁匙 ② 鋌匙 ③ 插匙 ④ 颯匙
22. 그녀는 [전족]으로 자라지 못한 발로 넘어질 듯 쓰러질 듯 걸어가고 있었다.
① 佃足 ② 纏足 ③ 填足 ④ 氈足
23. 매마침 발강게 물들어 가는 [능선]과 노랑게 익은 감들이 가을 소식을 전해 준다.
① 稜線 ② 綾線 ③ 凌線 ④ 陵線
24. 김치, 젓갈,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은 항암, 항노화 효과가 우수하다.
① 淸鞠醬 ② 淸麴漿 ③ 淸鞠漿 ④ 淸麴醬
25. 임금의 친필을 [어신필]이라 한다.
① 御蜃筆 ② 御宸畢 ③ 御蜃畢 ④ 御宸筆
26. 한반도를 [위요]하고 있는 정치·경제·군사적 상황이 매우 긴박한 가운데 정상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① 緯撓 ② 衛嶢 ③ 圍繞 ④ 葦蓼
27. [연하]에 장애가 생기면 음식물과 타액이 기도를 막아 숨이 막힐 수 있다.
① 纈下 ② 椽下 ③ 嚥下 ④ 吮下

※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28. 승마를 많이 할 경우 대퇴부에 []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① 捻挫 ② 括弧 ③ 萬朶 ④ 眞荏
29. 이모는 스물셋에 이모부를 여의고 []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① 城砦 ② 操舵 ③ 柳絮 ④ 孀婦
30. 비록 옷차림은 []했지만 용모를 보아하니 보기 드문 귀상이었다.
① 豐穰 ② 襤褸 ③ 蟋蟀 ④ 駙馬
31. []는 몽고에서 들어온 풍속으로 고려 말에 크게 유행하였다
① 殯所 ② 梵語 ③ 開剃 ④ 袒左
32. 그는 노인으로 []하고 무대에 올라갔다.
① 銜能 ② 撥軍 ③ 扮裝 ④ 謫仙
33. 위장술이 감쪽같이 []나지 않았다.
① 褶曲 ② 杳然 ③ 芒種 ④ 綻露

34. 그 회사는 올해 전반기에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을 올렸다.

- ① 呵責 ② 氣焰 ③ 爻象 ④ 搭乘

※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

35. 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음.

- ① 逗留 ② 膠漆 ③ 拓本 ④ 粧潢

36. 낚은 형질을 모아 기워 만든 승려의 옷.

- ① 縑素 ② 羽緞 ③ 袴衣 ④ 衲衣

37. 씩씩하고 험결참.

- ① 欣欣 ② 沓沓 ③ 赳赳 ④ 恂恂

38.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장소.

- ① 摺紙 ② 鯉庭 ③ 仰韶 ④ 粉飾

39.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냄.

- ① 緬禮 ② 坐礁 ③ 擲影 ④ 彈劾

40. 괴이한 버릇.

- ① 怪癖 ② 沸騰 ③ 賚用 ④ 醜楷

41. 왕이나 왕족, 귀족 등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

- ① 疲弊 ② 顛沛 ③ 薨逝 ④ 狼狽

※ []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42. [飽飫烹宰]

- ① 굶주리면 지게미나 쌀겨도 달콤함.
 ② 가마에 넣어서 삶아 죽임.
 ③ 배부를 때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맛을 모름.
 ④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음.

43. [不食自逋]

- ① 사사료이 떼어먹지 않았는데도 공금 따위가 저절로 축남.
 ② 죄를 짓고 달아난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
 ③ 조세를 내지 아니함.
 ④ 쇠고기를 얇게 저미어 말린 포.

44. [尾大難掉]

- ① 훌륭한 것 뒤에 보잘것없는 것이 뒤따름.
 ② 지나치게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접하여 오히려 무례함.
 ③ 장점이나 넉넉한 것으로 단점이나 부족한 것을 보충함.
 ④ 일의 끝이 크게 벌어져서 처리하기가 어려움.

45. [摩頂放踵]

- 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잇달아 속출함.
 ② 온몸을 바쳐서 남을 위하여 희생함.
 ③ 남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름.
 ④ 발돋움하고 있을 만큼 몹시 기다림.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江村> - 杜甫
 清江一曲抱村流
 長夏江村事事幽
 自去自來堂上燕
 相親相近水中鷗
 老妻畫紙爲碁局
 稚子敲針作釣鉤
 多病所須唯藥物
 微軀此外更何求

(나) <題伽倻山讀書堂> - 崔致遠
 狂噴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다) <涇江歌> - 林悌
 涇江兒女踏春陽
 江上垂楊正斷腸
 無限煙絲若可織
 爲君裁作舞衣裳

46.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문맥상 ㉠의 뜻과 같은 것은?

- ① 雙鉤 ② 垂鉤 ③ 帶鉤 ④ 牽鉤

47.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독음이 ㉠과 다른 것은?

- ① 更生 ② 更紙 ③ 更迭 ④ 更年期

48.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이 문맥상 ㉠의 뜻과 같은 것은?

- ① 故意 ② 作故 ③ 故鄉 ④ 緣故

49. 문맥상 ㉠의 뜻은?

- ① 같다 ② 반야 ③ 너 ④ 만약

50. (다)의 운자를 모두 찾은 것은?

- ① 陽, 裳 ② 陽, 腸, 裳
 ③ 陽, 腸 ④ 腸, 裳

주관식 I (주1~주100번)

■ [주관식 I]의 답은 [OCR답안지]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 瑣 ()
- 주2. 卦 ()
- 주3. 罍 ()
- 주4. 棧 ()
- 주5. 嗅 ()
- 주6. 顎 ()
- 주7. 幟 ()
- 주8. 赧 ()
- 주9. 瘙 ()
- 주10. 簋 ()
- 주11. 鞞 ()
- 주12. 癩 ()
- 주13. 柝 ()
- 주14. 莢 ()
- 주15. 弭 ()
- 주16. 泌 ()
- 주17. 榻 ()
- 주18. 漱 ()
- 주19. 咽 ()
- 주20. 饗 ()
- 주21. 燼 ()
- 주22. 逡 ()

※ 한자의 부수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23. 禱 ()
- 주24. 鴻 ()
- 주25. 繇 ()
- 주26. 截 ()

※ 훈과 음에 맞는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27. 호미 서 ()
- 주28. 등지느러미 기 ()
- 주29. 백성 맹 ()
- 주30. 도포 오 ()
- 주31. 음 선 ()
- 주32. 가로막을 란 ()

- 주33. 씹을 서 ()
- 주34. 도요새 홀 ()
- 주35. 흥년들 겸 ()
- 주36. 낚싯줄 민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衰 籌 硅 硝 盥 黔 彪 悴
------	-----------------

- 주37. ○酸 ○素 ○藻 ()
- 주38. 憔○ ○顏 盡○ ()
- 주39. ○備 ○算 ○劃 ()
- 주40. ○突 ○黎 ○慝 ()

※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주41. 麤陋 ()
- 주42. 滑稽 ()
- 주43. 贍賑 ()
- 주44. 陟岵 ()
- 주45. 餘窠 ()
- 주46. 綽楔 ()
- 주47. 剿滅 ()
- 주48. 岑樓 ()
- 주49. 毓精 ()
- 주50. 縻綆 ()
- 주51. 牡蠣 ()
- 주52. 阿喇喇 ()
- 주53. 幢竿 ()
- 주54. 雲髻 ()
- 주55. 鴟梟 ()
- 주56. 悉曇 ()

※ []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

- 주57. [무고]란 무당의 술법으로써 남을 저주하는 것이며, 방자라고도 한다. ()
- 주58.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지만 결국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다. ()
- 주59. 그는 의식이 회복된 지 이틀 만에야 겨우 음식을 [저작]할 수 있었다. ()
- 주60. 이 작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 가운데 하나이다. ()

※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단,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

- 주61. 그녀는 **甚**한 입덧으로 벌써 며칠째 雀水 不入하고 누워 있다. (→)
- 주62. 醫師는 分明히 回復된다고 했는데 本人은 遞念하고 있는 것 같다. (→)
- 주63. 敵의 形勢를 斂探한 我軍은 새벽에 奇襲 攻擊을 하기로 決定했다. (→)
- 주64. 빅뱅 理論에 의하면 宇宙는 烹脹하고 있다. (→)
- 주65. 내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그녀는 音樂에 盜醉했다. (→)

※ 풀이에 맞게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66. [예좌]: 부처가 앉는 자리. ()
- 주67. [위축]: 고슴도치가 적을 만나면 몸을 움츠린다는 뜻으로, 두려워서 몸을 움츠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주68. [잠영]: 양반이나 지위가 높은 벼슬아치 또는 그 지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주69. [별견]: 얼른 슬쩍 봄. ()
- 주70. [전분]: 감자, 고구마, 물에 불린 녹두 따위를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을 말린 가루. ()
- 주71. [전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을 이르는 말. ()
- 주72. [견사]: 누에고치에서 켄 실. ()
- 주73. [메별]: 소매를 잡고 헤어진다는 뜻으로, 섭섭히 헤어짐을 이르는 말. ()
- 주74. [배기판]: 내연 기관이나 열기관에서 나오는 가스나 증기 따위를 뽑아내기 위하여 구멍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밸브. ()

- 주75. [귀부]: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 ()

※ 문장 속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76. 그들은 [철천지원수]가 되어 평생 서로를 미워하였다. ()
- 주77. 그녀는 이윤과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
- 주78. 왕이 [면류관]을 찰락찰락하며 즉위식장으로 들어섰다. ()
- 주79. 오늘따라 회의 분위기가 시종 [화기애애]하였다. ()
- 주80.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신풜조를 빨리 없애야 한다. ()
- 주81.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
- 주82. 성인병에는 식생활을 조절하는 [식이 요법]이 중요하다. ()
- 주83. [이노제]는 오줌의 양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
- 주84. 적 사살은 세 명에 그쳤으나, 적으로부터 다량의 군기를 [노획]하였다. ()
- 주85. 유라시아 대륙은 끝이 없을 만큼 [방대]하다. ()
- 주86. 지금 농촌은 [이양] 준비로 한창 바쁜 때이다. ()
- 주87. 그동안 뵈지 못하여 [적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
- 주88.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도장 대신 [무인]이 찍혀 있었다. ()
- 주89. 그는 누구도 하길 꺼리는 시체 [염습]을 자원봉사로 한다. ()
- 주90. 이 시를 약간 [산삭]하고 첨가하면 그 악곡과 어울리겠다. ()

※ []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91. [○破門闕] 인재를 등용할 때 문벌을 가리지 아니함. ()
- 주92. [殘杯冷○] 마시다 남은 술과 다 식은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보잘것없는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주93. [酒果脯○] 술·과일·육포·식혜라는 뜻으로, 간략한 제물을 이르는 말. ()
- 주94. [川渠○溢] 비가 많이 와서 개천물이 넘쳐흐름. ()
- 주95. [○入鴉群] 아주 용맹한 자가 약한 사람들의 무리를 쳐 흩어 버림. ()
- 주96. [○長三尺] 허물이 드러나서 숨겨 감출 수가 없음 ()
- 주97. [傷寒動○] 찬 기운으로 인하여 가슴이 울렁거리고 열이 나는 증상. ()
- 주98. [○視跛履] 분에 넘치는 일을 하다가는 오히려 화를 자초함. ()
- 주99. [膏火自○] 재주 있는 사람이 그 재주 때문에 화를 입음. ()
- 주100.[○烙之刑] 기름칠한 구리 기둥을 숯불 위에 걸쳐 놓고 죄인을 그 위로 건너 가게 하던 형벌. ()

주관식 II (주101~주150번)

■ [주관식III]의 답은 별도의 [주관식 II 답안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기하시오.

- 주101. 그는 [冢中枯骨]처럼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이다. ()
- 주102. 직책은 다하지 못하면서도 관록만 타 먹고 있으니 [尸位素餐]이라 할 만하다. ()
- 주103.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 온 그는 직장 동료들과 [桑麻之交]를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다. ()
- 주104. [波瀾重疊]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했다. ()

※ []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05. 석가모니가 [연꽃을 따서 집어 들고 대중에게 보이자 마하가섭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
- 주106. 그는 [머리털을 바람으로 빗질하고 몸은 빗물로 목욕하듯이] 고생하며 노력한 끝에 큰 기업을 일구었다. ()
- 주107. 그는 [쥐나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 ()
- 주108. 역병이 심해져서 두 나라는 얼마 동안은 [군기를 누이고 복을 쉬기로] 하였다. ()

※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

- 주109. 寬弘磊落 ()
- 주110. 吹毛覓疵 ()
- 주111. 汗牛充棟 ()
- 주112. 斧鉞之下 ()

※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

- 주113. 邀處無 往處多 ()
- 주114. 雖有忙心 線不繫鍼 ()
- 주115. 對笑顏 唾亦難 ()
- 주116. 不燃之突 煙不生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雖而則之焉與及於如諸以何莫

- 주117. ○有仁人在位 罔民○可爲也 《孟子》
(,)
- 주118. 高句麗常○春三月三日 祭天○山川神 《三國史記》 (,)
- 주119. 若口讀而心不體身不行 ○書自書我自我 ○益之有 《擊蒙要訣》 (,)
- 주120. 陸行千里 不○舟行萬里○爲便利也 《北學議》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育道卑師務責和知行新保生官

- 주121. 溫故而知○ 可以爲○矣 《論語》 (,)
- 주122. 致中○ 天地位焉 萬物○焉 《中庸》 (,)
- 주123. 君子之道 如○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 《中庸》 (,)
- 주124. 有○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者 不得其言則去 《爭臣論》 (,)

※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 주125. [故救棄無常善聖人人人] 《老子》
국역: 성인은 늘 남을 잘 구원해주기 때문에 버려둔 사람이 없다. ()
- 주126. 責難於君 謂之恭 陳善閉邪 謂之敬 [之賊能君不吾謂] 《孟子》
국역: 임금에게 하기 어려운 일을 권면하고 책하는 것을 공손하다고 이르고, 선을 개진하고 사악한 것을 막는 것을 공경스럽다고 이르고, 우리 임금이 선왕의 선한 도를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도적이요 이른다. ()
- 주127. [而而篤切思學博近問志] 仁在其中矣 《論語》
국역: 배우기를 널리 하고 뜻을 독실히 하며, 문기를 절실히 하고 생각을 가까이에서 하면 인은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

- 주128. [德令流速而於郵之傳置行] 《孟子》
국역: 덕의 퍼짐은 역참에 파발마를 두어 명령을 전하는 것보다 빠르다. ()

- ※ [] 부분을 국역하시오.
- 주129. [溫溫恭人 維德之基] 《詩經》 ()
- 주130. 才俊人 宜學恭謹 [聰明人 宜學沈厚] 《象村集》 ()
- 주131. 後生 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 《論語》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水陸草木之花가 可愛者甚蕃이라 晉陶淵明獨愛菊하고 ①自李唐來로 世人甚愛牡丹이라 予獨愛蓮之出於②어니而不染하고 ③濯清漣而不夭라 中通外直 不蔓不枝하고 香遠益清하여 ④정정淨植하여 ⑤可遠觀而不可褻翫焉하니 予謂(㉠)은 花之隱逸者也요 牡丹은 花之富貴者也요 (㉡)은 花之君子者也라 噫라 菊之愛은 ⑥陶後鮮有聞이오 蓮之愛는 同予者何人고 牡丹之愛는 宜乎衆矣로다 《古文眞寶》

- 주132. ①을 국역하시오. ()
- 주133. ①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34. ③을 국역하시오. ()
- 주135. ④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36. ⑤을 국역하시오. ()
- 주137. ⑥을 국역하시오. ()
- 주138. ㉠와 ㉡에 각각 들어갈 1음절 漢字(正字)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生亦悽惋不已曰 寧與娘子와 同入九泉이언정 豈可無聊獨保殘生이리오 向者傷亂之後에 親戚僮僕이 各相亂離하고 ①亡親骸 狼籍原野라니 ②儻非娘子면 誰能奠埋리오 古人云 生事之以禮하고 死葬之以禮라하니 盡在娘子라 天性之純孝요 人情之篤厚也라 感激無已하고 自愧可勝이라 ③願娘子는 淹留人世하여 百年之後에 同作塵土라 女曰 李郎之壽는 剩有餘紀하고 妾已載鬼籙하니 不能久視라 若固④권련人間하여 違犯條令이면 非唯罪我요 兼亦累及於君이라 但妾之遺骸가 散於某處하니 倘若垂恩이라면 勿⑤暴風日호라 相視泣下數行하고 云 李郎珍重하소서 하니라 言訖漸滅하고 了無踪迹이라 生拾骨하고 附葬于親墓傍이라 既葬에 生亦以追念之故로 得病數月而卒이라 聞者莫不傷歎하고 而慕其義焉이라

《金鰲新話》

주139. ㉠을 국역하시오.

()

주140. 문맥상 ㉡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41. ㉢을 국역하시오.

()

주142.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43. 문맥상 ㉤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44. 윗글의 제목인 ‘이생규장전’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郡守大驚異之하여 自往勞其兩班하고 且問償糶狀이라 ①兩班氈笠衣短衣하고 伏塗謁稱小人不敢仰視하니 郡守大驚下扶曰 ②足下何自貶辱若是오 兩班益恐懼하여 頓首俯伏曰 惶悚이라 小人非敢自辱오 已自③鬻其兩班以償糶하니 里之富人乃兩班也라 小人④復安敢冒其舊號而自尊乎아 郡守歎曰 君子哉富人也여 兩班哉富人也여 富而不吝하니 義也오 急人之難하니 仁也라 惡卑而慕尊하니 智也라 此眞兩班이라 雖然이나 私自交易而不立券하면 訟之端也라 我與汝約하리니 郡人而證之하고 立券而信之하되 郡守當自署之리라 하고 於是에 郡守歸府하여 悉召郡中之士族及農工商賈하여 悉至于庭하고 富人坐鄉所之右하고 兩班立於公兄之下하여 乃爲立券曰 乾隆十年九月日에 右明文段은 屈賣兩班하여 爲償官穀하니 ⑤其直千斛이라 維厥兩班은 名謂多端하니 讀書曰土요 從政爲大夫요 有德爲君子니 武階列西하고 文秩敍東하니 是爲兩班이니 任⑥爾所從하라

《燕巖集》

주145. ㉠을 국역하시오.

()

주146. ㉡을 국역하시오.

()

주147. 문맥상 ㉢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48. ㉣을 국역하시오.

()

주149. ㉤을 국역하시오.

()

주150. 문맥상 ㉥의 뜻과 같은 1음절 漢字(正字)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

- 수고하셨습니다 -

합격자 발표: 2021. 9. 16. (목)

결과조회: 홈페이지 (www.hanja114.org) 접속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필수 기재)

제105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1)

■ 객관식 ■

1	④	6	③	11	③	16	②	21	③	26	③	31	③	36	④	41	③	46	②
2	②	7	②	12	③	17	①	22	②	27	③	32	③	37	③	42	③	47	③
3	③	8	④	13	④	18	③	23	①	28	①	33	④	38	②	43	①	48	①
4	①	9	③	14	①	19	④	24	④	29	④	34	②	39	①	44	④	49	④
5	①	10	①	15	①	20	④	25	④	30	②	35	①	40	①	45	②	50	②

■ 주관식 I ■

주1	자질구레할 쇠	주21	감부기불 신	주41	추루	주61	雀→勺	주81	空豁
주2	찌름/벨 규	주22	뒷걸음질칠 준	주42	골계	주62	遞→諦	주82	食餌療法
주3	지경 강	주23	示	주43	섬진	주63	斂→廉	주83	利尿劑
주4	잔도 잔	주24	鳥	주44	척호	주64	烹→膨	주84	鹵獲
주5	말을 후	주25	糸	주45	여과	주65	盜→陶	주85	龙大
주6	얼굴높을 악	주26	戈	주46	작설	주66	猊座	주86	移秧
주7	기 치	주27	鋤	주47	초멸	주67	蝟縮	주87	積阻
주8	얼굴붉힐 난	주28	鰭	주48	잠루	주68	簪纓	주88	拇印
주9	종기 소	주29	氓	주49	육정	주69	瞥見	주89	殮襲
주10	제기이름 궤	주30	襖	주50	미경	주70	澱粉	주90	刪削
주11	질길 인	주31	癬	주51	모려	주71	筌蹄	주91	劈
주12	부스럼 절	주32	闌	주52	아라리	주72	繭絲	주92	灸/肴
주13	열 탁	주33	噬	주53	당간	주73	袂別	주93	醯
주14	풀열매 험	주34	鷓	주54	운계	주74	排氣瓣	주94	漲
주15	활고자 미	주35	歉	주55	치효	주75	龜趺	주95	鶻
주16	점잖을 필	주36	緝	주56	실담	주76	徹天之怨讐	주96	喙
주17	결상 탑	주37	硅	주57	巫蠱	주77	攄得	주97	悸
주18	양치질할 수	주38	悴	주58	無辜	주78	冕旒冠	주98	眇
주19	실 희	주39	籌	주59	咀嚼	주79	和氣靄靄	주99	煎
주20	아침밥 옹	주40	黔	주60	著作	주80	蔓延/衍	주100	炮

제105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2)

▣ 주관식 II ▣

주101	X	주118	以，及	주135	亭亭
주102	O	주119	則，何	주136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는 없다.
주103	X	주120	如，之	주137	도연명 이후에 <또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드물며,
주104	O	주121	新，師	주138	㉠:菊, ㉡:蓮
주105	拈華微笑	주122	和，育	주139	돌아가신 아버지의 뼈가 들판에 흩어져 깔렸는데
주106	櫛風沐雨	주123	行，卑	주140	만약 당
주107	鼠竊狗偷	주124	官，責	주141	娘子(그대)에게 바라니 사람(인간) 세상에 꼭 머물다가
주108	偃旗息鼓	주125	聖人常善救人 故無棄人	주142	眷戀
주109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 사소한 일에 거리끼지 아니함.	주126	吾君不能 謂之賊	주143	짚 폭
주110	억지로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냄.	주127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주144	李生窺牆傳
주111	가지고 있는 책이 매우 많음.	주128	德之流行 速於置郵而傳令	주145	양반이 병거지를 쓰고 짧은 잠방이를 입고
주112	제왕의 위엄.	주129	온화하고 남을 공경하는 것이 덕의 기본이다.	주146	귀하는 어찌 이다지 스스로 낮추어 욕되게 하시는가?
주113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주130	충명한 사람은 마땅히 침잠함과 두터움을 배워야 한다.	주147	팔 육
주114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랴?	주131	어찌 <후생의> 장래가 <나의> 지금만 못할 줄을 알겠는가?	주148	다시 어찌 감히 옛 칭호를 거짓으로 사용해서
주115	웃는 낮에 침 뱉으랴.	주132	이씨의 당나라 이래로	주149	그 값은 천 석이다
주116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랴.	주133	淤泥	주150	汝
주117	焉，而	주134	맑은 물결에 씻기어도 요염하지 아니한 것(을 사랑한다.)		